

‘확률과 통계’ 자연계 핵심과목으로 고교학점제 반영한 ‘첫 사례’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지난 31일, 입학처가 2028학년도 자연 계열 분야의 고등학교 교과 이수 권장과목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부터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고1 학생이 대학 진학에 필요한 과목 선택을 돕기 위함이다.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올해 고1 학생부터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다. 평가 방식도 바뀌었다. 내신 상대평가는 기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뀐다. 수능 체계 역시 선택과목 없이, 공통과목으로만 치르는 통합형 수능으로 개편된다. 그에 따라 기존 수학 선택과목 미적분Ⅱ·기하, 과학 선택과목 물리학·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이 수능 출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른바 ‘문·이과’에 따라 나뉘었던 진학 계열별 학급시간표 역시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선택하는 개인별 시간표로 바뀐다.

변화하는 고교 교육과정에 따라 대입 전형도 변화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우리학교 입학처도 현재 대입전형 평가에 활용하고 있는 ‘대학 자연계열 전공 학문 분야의 교과 이수 권장과목’을 개편했다. ‘대학 자연계열 전공 학문 분야의 교과 이수 권장과목’에는 필수 이수를 권장하는 ‘핵심과목’과 가급적 이수를 권장하는 ‘권장과목’이 있는데,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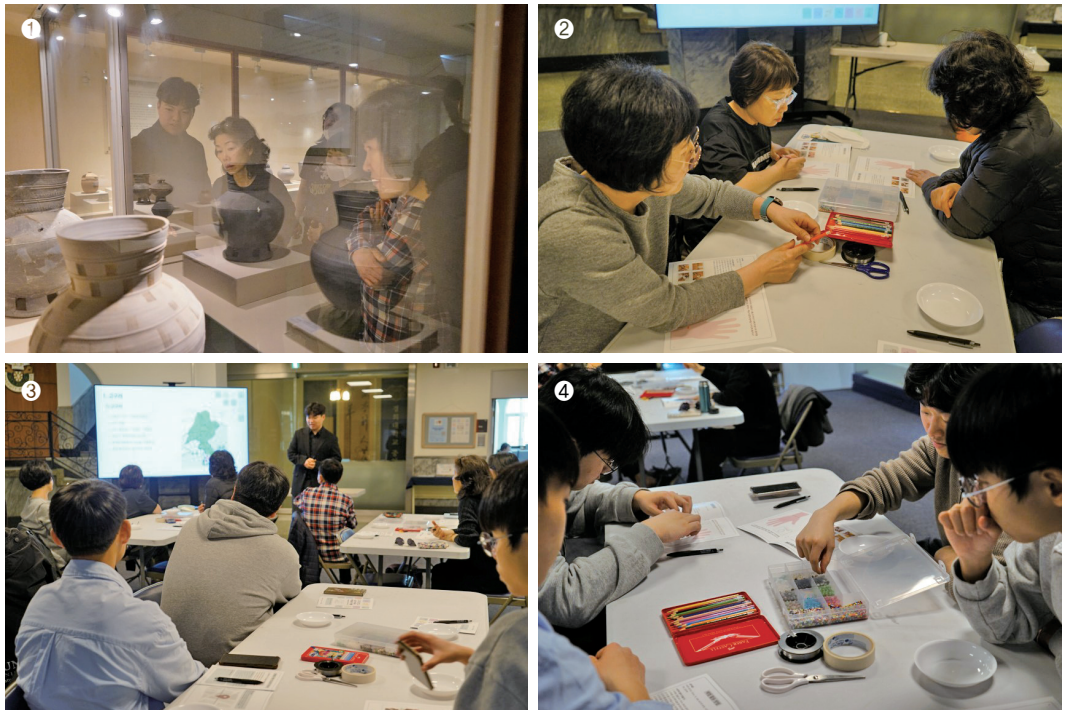
두 영역에 변화를 준 것이다.

구체적으로, 우리학교 자연계는 수학 수능 출제 범위인 ‘확률과통계’를 모든 학문분야의 핵심과목으로 편성한다. 기존 확률과통계가 핵심과목이었던 분야는 ‘산업’, ‘화학’, ‘간호·보건’ 뿐이었지만, 개편에 따라 모든 학문분야 핵심과목이 된다. 과학 교과는 학문분야마다 상이하지만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세포와 물질대사’ 등이 새롭게 핵심과목과 권장과목으로 지정됐다.

우리학교 입학처는 국내대학 중 가장 먼저 권장과목에 관한 입장을 발표했다. 입학전형팀 임진택 팀장은 “오는 5월부터 고1 학생의 2학년 선택과목 개설이 시작되기에 수험생 편의를 고려해 빠르게 발표했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 주요 9개 대학 중 대부분의 대학은 핵심과목 지정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중앙대 입학처는 “권장과목을 발표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없다”고 했으며 고려대 입학처는 “내부 연구가 필요한 사항이라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중앙대, 고려대를 제외한 대학은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도입할 계획은 아직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인문계열은 자연계열과 달리 권장과목을 두지 않는다. 학문 특성상 학습 단계가 뚜렷하지 않고, 자율/자유전공학부는 전공을 자율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권장과목을 두지 않는다.

입학처는 의견수렴과 공동연구 이후 내년 4월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① 관람객이 신라시대 유물을 보고 있다. ② 나만의 팔찌를 만들기 위해 도안을 짜고 있다. ③ 전시 관람에 앞서 고구려시대 역사 강연이 진행됐다. ④ 학생들은 팔찌를 만들기 위해 곡옥을 켜고 있다. (사진=김유경 기자)

삼국의 위엄 오늘의 취미가 되다 중앙박물관 체험 프로그램 성료

김유경 기자 ghafjs@khu.ac.kr

【서울】지난 10일 중앙박물관에서 삼국시대 문화를 체험하는 ‘삼국시대, 위엄을 드러내다’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해 삼국시대 유물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열린 행사는 중앙박물관이 기획한 ‘슬기로운 취미생활 <대학 박물관편> - 옛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만의 취미 찾기’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중앙박물관 이수현 연구원은 “최대한 다양한 활동에 대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도슨트 등 여러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순서인 ‘삼국시대, 위엄을 드러내다’ 프로그램에는 우리학교 학생과 다양한 연령층의 지역 주민이 함께했다. 이들은 먼저 유물·유적을 통해 삼국시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박물관 내부 전시실에서 관람객은 신라의 굽은고리 귀걸이와 백제의 세발토기를 살펴봤다. 전시실을 둘러본 장해옥 씨는 “옛날에 배웠던 것이 새롭고 재밌다”고 감상을 전했다. 한 관람객은 “고구려 시대 기와가 생각보다 많이 전시돼 있어서 놀라웠다”며 연화 귀면문 도당이 오래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체험 활동에서는 신라의 곡옥 목걸이에서 영감을 받은 팔찌 만들기 진행됐다. 관람객은 마음에 드는 비즈를 골라 하나하나 우레탄 줄에 꿰었다. 좋아하는 색, 빛깔이 핀 봄의 모습, 역사적인 의미 등 다양한 메시지를 담아 형형색색의 팔찌를 완성했다. 관람객 윤영문 씨는 “천상열차분야지도에서 영감을 받아 구슬을 5개씩 4가지 색으로 꿰었다” 이어 “태아를 낳은 곡옥을 가운데에 꿰어 생명의 탄생을 나타냈다”고 자신이 만든 팔찌를 설명했다.

동대문구 내에서 삼국시대의 흔적을 찾아보는 활동도 있었다. 한 관람객은 “동대문구에서 유일한 삼국시대 유적을 찾아볼 수 있는 배봉산 보루가 생각난다”고 말했다. 참여자들은 지역에서 역사를 즐길만한 장소를 서로 제안하며 동대문구 지도에 표시하기도 했다.

관람객 하순례 씨는 “먼 과거에 살던 사람들이 지금의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을 것 같다”며 감상을 전했다. 또 다른 관람객 김영랑 씨는 “박물관이 역사적 자료만 관람하는 공간인 줄 알았는데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셔서 즐겁게 참여했다”고 만족을 표하기도 했다.

‘옛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만의 취미 찾기’는 삼국시대에 이어 오는 17일과 24일엔 각각 ‘고려시대, 향을 입다’와 ‘조선시대, 즐기며 구경하다’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학주보



대학주보 카카오톡채널이 생성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고 경희대학교소식 받아보세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톡 상단 검색창 클릭 → QR코드 스캔 → 채널 추가

kakaotalk